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프라 안젤리코 Fra Angelico, <최후의 심판>(부분)
산 마르코 미술관, 피렌체



우리가 꿈꾸는 왕

오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왕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대축일을 맞이하여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과거에 봤던 “광해-왕이 된 남자”란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가짜 왕’이 된 주인공 ‘하선’과 도승지 ‘허균’이 나눈 대사를 통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해보았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다!” 사람들이 꿈꾸는 왕은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진정으로 섬기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 하느님이심, 즉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왕입니다.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소이다!” 또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지아비라 부르는 왕이라면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임금을 위해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오히려 자신을 왕이라 부르는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왕, 이런 왕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자신의 왕을 지아비라 부르듯이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자녀인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애쓰신 것입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사대의 예. 나에겐 사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만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신적 영광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을 원하며, 그 왕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 누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구원계획을 세우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시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린토 1서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1코린 15,22)

우리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근 요한 신부 | 용원본당 주임



제 1 독 서	에제 34,11-12.15-17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 서	1코린 15,20-26.28
복 음	마태 25,31-46

주일 진례

사도행전 읽기 16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3차 선교여행과 에페소

바오로는 2차 선교여행 때 설립한 교회들을 둘러보며 격려하기 위해 세 번째 선교여행(18,23-21,16)을 떠납니다. 이 여행 중 바오로는 아시아 속주 수도였던 에페소에 도착하여 약 3년간 머무렸는데, 바오로 자신이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전교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1코린 16,9). 하지만 전교가 잘 되면 될수록 적대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에페소는 당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이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에페소 유적

사진출처: 가톨릭평화신문

많은 학자들은 바오로가 이곳 에페소에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지만, 바오로가 이곳에 오래 머무른 것(사도 19,10)을 바탕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인데, 학자들은 바오로가 아마도 이곳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간인 필립비서와 필레몬서를 적었으리라 여깁니다. 또 다른 옥중서간으로 콜로새서(콜로 4,10)도 만약 바오로 친서라고 본다면 이곳에서 적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외에도 바오로는 갈라티아서와 코린토 1,2서도 이곳 에페소에서 저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 보니 에페소는 바오로 편지의 산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필레몬의 도망 노예였다가 풀려난 뒤 티모테오에 이어 에페소의 두 번째 주교가 된 오네시모스가 자신의 해방문서인 필레몬서를 붙여 13통의 바오로 서간을 묶었으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 단락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갑자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단락들을 만납니다. 주인공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사용되는 단락이 네 번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단락을 “우리 단락”이라 부릅니다(16,10-20; 20,6-16; 21,1-16; 27,1-16). 이 단락에서는 바오로가 대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아마도 바오로 일행과 함께 ‘우리’에 포함되는 저자 루카가 그 여행에 동행한 듯 보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배에서 일하던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단락들에서 루카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바오로의 선교여행을 생생하게 전해 줍니다.

바오로는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코린토에서도 석 달 가량 지내는데(사도 20,3; 1코린 16,5-9; 사도 19,21 참조), 이곳에서 바오로의 신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바오로의 가르침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로마서를 저술한 듯합니다. 바오로는 코린토를 떠나면서 여러 교회로부터 보내온 예루살렘 신자들을 위한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전해주며 지나간 선교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의롭지만 죄인인 노아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노아 이야기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겠다.”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창세 6. 7.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 속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 1,2. 대런 아로노프스키, 아리 헨델 글. 니코 앙리송 그림. 이현희 옮김

시작은 같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하느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십니다.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된 노아는 방주를 건설합니다. 동물들이 방주를 향해 오고, 악의 무리조차 방주에 태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노아는 방주가 완성될 시간을 벌기 위해, 얼마만큼 태워주겠느냐고 ‘거짓’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모든 동물들과 첫째 아들 셈처럼 자신들의 짝을 찾고 싶어 하는 나머지 두 아들의 바람 때문에 ‘갈등’합니다.

노아, 이제 함과 야벳을 생각할 때가 아닐까요? / 혹시... 혹시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건 아닐까? 어쩌면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함과 야벳에게 짝을 찾아주는 걸 바라지 않으실지도 몰라. 여기 이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는 것, 그걸로 인간의 임무는 끝인 거야. 그리고 인간은 사라지는 거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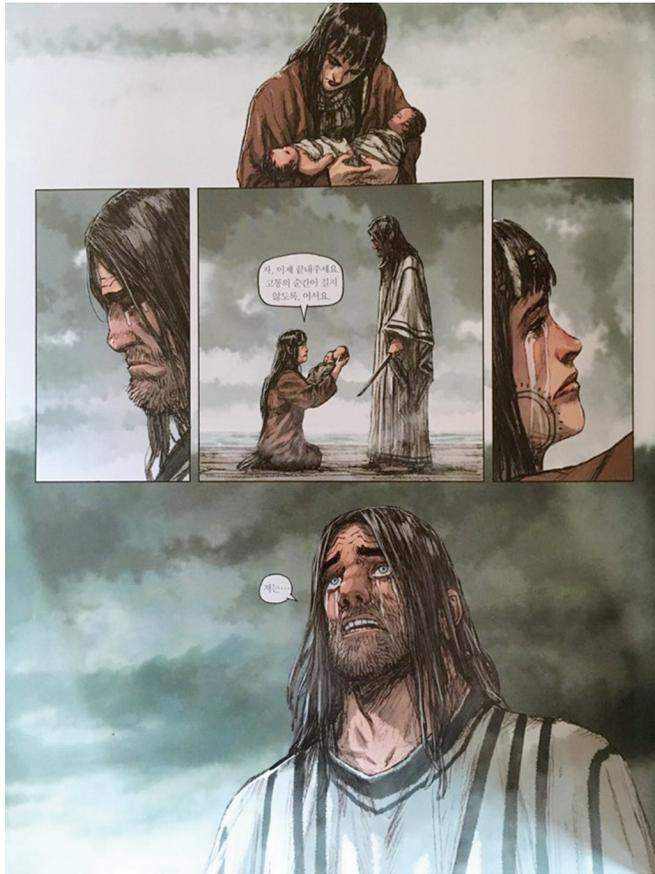
야벳이 동물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죽게 만들고 노아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죽어 있는 이 짐승을 본 순간 화를 참을 길이 없어서... 창조주의 피조물 하나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는 생각에 그만... / 그건 실수였어요. 사고였다고요! 아이들 탓이 아니에요. / 아이들을 탓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책망하고 있어.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보인 반응에 대해서. 악은 우리 모두의 안에 있지.

노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편엔 세상의 운명이, 다른 한편엔 스스로의 욕망이 있습니다. 노아는 옳다고 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방주 바깥의 악한 사람들뿐 아니라, 노아 자신과 가족들까지도 사라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함이 자신의 짝으로 삼고자 데리고 온 여자를 방주 밖으로 내몰고, 셈의 아내 일라가 임신한 것을 알고,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겠다 공표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모든 것이 좋았다. 그것은 천국이였다. 창조주의 손안의 소중한 보물이였다. 그리고 남자가 생겨났다. 옆에는 여자가 있었다. 모든 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두 사람은 금단의 열매를 맛보았고, 그렇게 그들의 무구함은 사라졌다. 형이 아우를 죽이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인간은 세상을 파괴했다. 창조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 즐기만 하던 그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파괴되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짓밟는 최후의 인간들이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원죄를 물려받은 이들. 하지만 우리는 원죄를 대물림하지 않을 것이다.

셈과 일라는 우리를, 너희 어머니와 나를 땅에 묻을 것이다. 함은 그 둘을 묻을 것이다. 야벳은 네 형이 편히 쉴 수 있게 할 것이다. 야벳, 바로 네가 최후의 인간이 될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또다시 파괴하게 두어선 안 된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일라는 노아에게 부탁합니다. 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달랠 수 있도록, 적어도 엄마 품에서 평화를 느끼고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아이들을 꼭 껴안은 엄마,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노아에게 인간은, 그때까지는 죄악 자체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일라의 모습은 사랑 자체인 인간이었습니다. 노아의 눈앞에, 그때까지 온통 시커멓던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추입니다. 노아는 오열하며 쓰러집니다.

저는, 저는 못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확신에 따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은 살아남았고 비둘기가

땅의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새로운 세상, 생명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하나같이 남을 배려하는, 인간.
인간은 거짓말을 뱉고, 살생을 저지르고, 사랑을 한다. 노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노아가 옳았던 것일까? 인간이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걸까?

우리는 영원히 증오와 절망과 이기심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나는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했다.



죄인이지만 의로운 우리

노아가 인간이 멸망해야 한다고 확신한 이유는, 의인이라 인정받은 자신도 방주 밖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마 일라의 모습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악인이라는 이들도, 의인이라는 노아도, 같은 인간입니다.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성에 대해 고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고뇌하는 마음짓과, 사랑을 실현하려는 몸짓으로, 죄인이지만 의로움의 길을 갑니다. 새로운 세상은, 죄인을 쓸어버림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사랑함으로 오게 됩니다.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창세 8. 9.



일 립



교구장 동정

수녀연합회 연수

일시: 11월 24일(화)
장소: 상남동성당

그리스도의 성혈흡송수녀회

일시: 11월 28일(토)

청년 신앙강좌 피정 파견미사

일시: 11월 29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교구 신학생(부제, 휴학생 포함)
참가비: 1인 10만 원
접수: 11. 30.(월)까지
계좌: KEB하나 160-890023-05404 (재)마산
교구/ 입금자명- 본당명+신학생,
(예:양덕신학생)

예비신학생, 여학생 예비성소자 겨울 연수

일시: 12월 19일(토) 10:00~19:30
장소: 예비신학생-마산(양덕동성당), 창원(사
파동성당), 거제(고현성당), 진주(신안
동성당)
여학생 예비성소자-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중1~고2 예비신학생,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등록자

집결: 본당별 및 개별적으로 해당 모임 장소
로 모임

준비물: 주일미사 준비

참가비: 1인 1만 원

접수: 11월 29일(주일)까지 ※마감일 엄수

계좌: KEB하나 160-890023-07704 (재)마산
교구(※본당명 꼭 표시, 예:양덕예신)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일시: 11월 25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교구 전례꽃꽂이회 정기총회

일시: 11월 26일(목) 13:30

장소: 교구청

ME 새신주말(21차)

일시: 12월 5일(토)~6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ME 주말을 체험한 모든 부부(여러 번
수강 가능)

신청: 11월 28일(토)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교구/본당

그라츠 자매교구위원회

일시: 11월 26일(목) 11:00

장소: 교구청

신학생 겨울방학(광주가톨릭대학교)

일시: 11월 28일(토)

청년 신앙강좌 피정 파견미사

일시: 11월 29일(주일) 13: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3층 대성전

문의: 청년부 055·249·7065

▶ 6월부터 진행된 청년 신앙강좌를 모두 참석한 청년
들에게 주교님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본당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학생 동계연수

일시: 12월 7일(월)~9일(수)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위원회/기관/단체

가톨릭 트래블
올레길 425Km 24박 25일
제주교구 성지 7곳 순례 일정
289만원 (11월 30일/ 매월 출발)
070-4086-0207 www.catravel.co.kr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로로 010-3243-5655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크 투어 010-5150-262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도
055.757.9888~9



일 립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기 타

한기 가는 길(성지순례길)

일시: 11월 19일~20일/ 11월 25일~27일/
12월 2일~3일/ 12월 9일~10일/
12월 17일~18일/
2021년 1월 7일~8일/ 1월 21일~23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참가비: 1박 2일~8만 원, 2박 3일~15만 원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12월 5일(토) 14:00
겨울진학캠프: 2021년 1월 9일(토)~10일(주일)
대상: 초6, 중1
문의: 경북 영천시 산자연중학교 054·338·0530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ac.or.kr

교구 가톨릭미술가협회 제24회 정기전

기간: 11월 18일(수)~24일(화)까지
장소: 마산 3.15아트센터
▶신입회원 모집
대상: 미술작업을 하는 가톨릭 신자
문의: 사무국장 010·9600·7994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무국 055·242·6776

로템의집 취사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취사원 1명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접수: 11월 23일(월)까지,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
제출서류: 응시원서(로템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문의: 055·292·4747
▶구체적 사항은 로템의집 홈페이지, 교구 홈페이지 지(http://cathms.kr) 채용정보 참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 12. 1.~2020. 11. 28.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0 산타가 되어주실래요

당신의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되어주실래요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이웃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을 의미 있게 2,500원을 계좌로 보내주세요.

단기모금기간 : 12월 6일(주일)까지
후원계좌 : 경남 580-07-0011610 성산복지관 (입금시 산타+후원자명)

※ 후원시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 문 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당신의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되어주실래요

인로운 꼬마에게
홀몸어르신에게
선물을 전해요

1. 2,500원을 보낸다.
경남은행 580-07-0011610

2. 이체 시 산타+후원자명

3. 이체 후 복지관으로 연락
(모금 2020.12.06까지)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82-3737



신이 나에게 맡겨놓은 시간

유시연 레아 소설가/ 가톨릭 문인회

신이 나에게 맡겨놓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투명하게 맑은 가을 하늘을 쳐다보며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다. 코끝에 스치는 맵싸한 바람결에 계절이 지나감을 느낀다. 추수가 끝난 빈들에는 참새 떼가 내려앉고 화려한 색깔을 수놓던 꽃과 나뭇잎들도 맥없이 스러져서 고요히 대지에 안겨들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모두 자연의 품 안에서 쉬고 있는 이 계절은 신이 인간과 자연을 위해 마련한 자비의 시간이다. 맹렬한 기세로 뻗어가던 생명체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내던 에너지를 내려놓고 이제 긴 침묵에 들어가려 한다. 인간이나 자연이나 살기 위해 애쓰던 날들, 폭풍우를 뚫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 살아남은 지난 시간 앞에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다. 11월은 가톨릭의 전례력으로 위령 성월의 달이다. 특별히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바치는 아름다운 전통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세상에 대해 한 번쯤 더 사유하게 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리나... 시편 기도의 깊은 의미가 가슴에 들어오지 않던 젊은 날에는 모든 것이 나 개인의 욕망과 욕구 충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느라 영혼을 살찌우는 기도문이나 빛나는 세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이 아닌 저 너머 세계에 대한 믿음도 막연하기만 했다. 어슴푸레한 저물녘, 맛있는 풀로 배를 채운 염소 떼가 울타리로 돌아오는 시간, 하루의 노동과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뒤로 석양이 진다. 수고하고 짐 진 이들이 고요히 휴식에 잠기면 대기도 깊은 침묵에 빠져든다. 신이 산책할 것만 같은 고즈넉한 대지, 빛도 어둠도 아닌,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인간은 자연의 순환이 일깨워주는 신비함도 있고 살아가기 바쁘다. 11월, 위령의 달에 인생에 대해 천착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다. 푸른 하늘에 무심히 떠있는 새털구름이나 벌레 먹은 나뭇잎이 발밑에 떨어져 내리는 것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노랑과 붉게 물든 잎사귀가 서서히 생명의 기운을 다해 가는 그 시각,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에서는 무와 배추가 싱싱하게 차오르고 있다. 달이 태양의 그림자에 밀려나듯이 세상은 삶과 죽음이 나란히 질서를 떠받치고 있다. 연옥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계절에 번잡한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욕망은 줄어들으려나.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느끼고 함께 사는 이들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이 된다면 세상은 한결 평화로워지리라. 추수가 끝나 적요한 대지를 보며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본다.